

##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예산 증액해야”

전장연 “알량한 구호품 수준 장애인 예산”  
“기획재정부가 장애인의 삶 좌지우지 주범”

장애인단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1박2일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1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 집회를 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공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이름만 바꾼 ‘조삼모사’에 불과한 수준으로 공표했다”면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서비스가 동반

되어야만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예산도 늘려야만 한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2020년 장애인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의 1/4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구호품’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예산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1년만의 역사적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부양인무자기준 완전 폐지, 2020년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변화,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로막는 것은 결국 기획재정부”라며 “알량한 구호품 수준의 예산으로, 대통령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공약조차도 단계적 사기행각으로 파기수준으로 몰아가며, 장애인의 삶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주범은 결국 기획재정부”라고 비판했다.



### 영암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영암군은 지난 13일, 군청 왕인실에서 군 산하 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소장 서미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 장애인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인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 공직자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한국도로공사 순천원주고속도로 황전(전주방향)휴게소 장애인 편의위해 휠체어 경사로 확충

한국도로공사 순천원주고속도로 황전(전주방향)휴게소가 장애인 편의를 위해 휠체어 경사로를 확충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장애인들이 휴게소 이용 시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휠체어와 도움벨, 인터폰을 설치했다.



황전(전주방향)휴게소 직원이 장애인 편의장비인 휠체어를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해 유모차와 보행기도 비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황전(전주방향)휴게소 금정민 소장은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고객들이 휴게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은 물론 관련 용품 비치를 마쳤다”면서 “직원들 서비스 교육도 강화해 더 편리하고 친절한 휴게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 ‘세계 2위’ 반도체 회사는 왜 버섯농장 주식을 샀을까?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장의 주식을 샀다. 표고버섯과 메모리 반도체를 잇는 이야기의 배경에는 장애를 가진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다.

17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농업회사법인인 ‘우영농원’의 지분 32%를 10억원에 매입했다. 이번 지분매입으로 우영농원은 SK하이닉스의 관계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영농원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1만1800㎡(약 3600평) 부지의 소규모 농장이다. 더불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친환경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사진왼쪽부터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건립 부지를 기부한 이상훈, 정춘순 부부, 강지연 푸르메재단 이사장

부쳤다며 공익재단이 나서 사회적 자산으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업분야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팜을 만들고, 이를 기점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푸르메재단의 계획

SK하이닉스, 우영농원 지분 32% 10억에 매입  
장애 자녀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스마트팜으로

하이닉스가 버섯농장에 투자하게 된 이야기는 이상훈 우영농원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농장 토지의 소유권을 푸르메재단에 넘기면서 시작된다.

올해 3월 장애인들이 재활과 자립을 돕는 ‘푸르메재단’이 발달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대표는 선택의 순간에 “직원을 서비스 교육도 강화해 더 편리하고 친절한 휴게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인과 함께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당시 이 대표는 푸르메재단 측에 부부가 함께 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농장을 일궈지만 힘에

에 SK하이닉스가 동참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이닉스는 지난 8월 푸르메재단과 스마트팜 건립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하이닉스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지분도 매입한 것이다.

푸르메재단 관계자는 “재단법인이 농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농업법인에 출자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며 “대기업 파트너를 찾던 중에 인근 이전에 사업장을 둔 SK하이닉스와 연결돼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금은 농장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